

유럽인문아카데미 강의
신유물론의 자연철학 9강



마음은 생각으로 표현되지만,
생각이 마음의 모든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다.
이런 점에서 마음은 하이퍼객체다

최종덕
(philonatu.com)

2025년 6월 9일

"비트가 존재하기 위하여 교차하는 1+n의 파동이 있어야 한다"

(하이퍼객체, 161)

- **모턴의 "1+n" 이란:** ' 하나 ' 의 파동(현상)에 ' 다수(n) ' 의 다른 파동들이 교차하고 상호작용하는 반위계적, 집합적, emergent 한 과정성
- **틀뢰즈의 "n-1"과 비교한다면,** "n-1"은 ' 하나'(중심)가 제거되어도 전체가 여전히 다수성을 유지하고, 새로운 연결을 만들 수 있는 잠재력

- 전체는 부분의 합보다 크다.
전제조건, 유익한 시스템
- 전체는 부분의 합과 같다.
수익
- 부분의 합은 전체보다 크다.
(하나의 부분이 전체보다 큰 수 있다.)
모든 하이퍼객체

- 토마스 네일은 들뢰즈가 '생성'과 '유동성'을 강조함에도 불구하고, 정작 '운동(motion)' 자체를 존재의 가장 근본적인 원리로 삼지 않는다고 비판한다. 들뢰즈는 '속도'나 '시간', 심지어 '정태'와 같은 개념들을 통해 변화와 흐름을 설명하려 하며, 이때 '운동'은 다른 개념들에 비해 존재론적으로 덜 중요한 위치에 놓았다고 네일은 들뢰즈를 해석한다.
- 네일은 이러한 들뢰즈의 입장이 자신의 운동의 존재론(motion of ontology)과 대조된다고 한다. 네일은 '운동'을 그 어떤 것에도 환원되지 않는 존재의 근본 범주로 삼으려 하는 반면, 들뢰즈는 '운동'을 다른 여러 '유동'이나 '생성'의 양상 중 하나로 본다는 차이를 강조한다고 한다.

하먼의 객체지향 존재론 OOO; object-oriented ontology

1. 원시적인 물질 덩어리-세계로 상정되어진 파생물이 아니다. 라투르도 이에 동의한다.
2. 객체는 자신의 부분들로 환원되지 않는다. (라투르 동의)
3. 객체는 인간의식에 나타나는 외양으로 환원될 수 없다.
4. 객체는 다른 사물과의 관계로 환원되지 않는다. 이점에서 라투르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하먼은 말한다. 라투르에게 객체와 객체 사이의 어떤 연결항이 요청된다. 하먼은 이런 연결항을 국소적 기회원인론이라고 해석한다. 라투르 자신은 이를 "번역"이라고 한다.
5. 객체는 자신이 세계의 여타 객체와 맺고 있는 관계들로 정의(환원)될 수 없다.(422)
6. 객체를 경험하지만 감각자료 덩어리를 경험하는 것은 아니다. (블랙홀처럼), -생태적 삶 48쪽

(하먼 2019, 406)

네트워크의 군주

하먼Graham Harman 번역서

- 사변적 실재론: 철학의 새로운 지평 *Towards Speculative Realism: Essays and Lectures* (2010)
- 도구적 존재: 하이데거와 사물의 형이상학 *Tool-Being: Heidegger and the Metaphysics of Objects* (2002)
- 네트워크의 군주: 브뤼노 라투르와 형이상학 *Prince of Networks: Bruno Latour and Metaphysics* (2009)
- 사중 객체 *The Quadruple Object* (2011)
- 객체지향 존재론: 모든 것을 위한 새로운 이론 *Object-Oriented Ontology: A New Theory of Everything* (2018)

OOO, 신유물론적 특성

- 비인간 중심성 (Nonhumanism):
- 새로운 물질성 개념 (New Materialism): 능동적이고 독립적
- 객체의 행위 능력 (Agency of Objects): 인간 의도와 무관하게 행위능력을 가진다.
- 관계의 재해석: OOO는 관계를 객체 자체보다 우선시하는 '관계주의'적 사고를 비판하지만, 객체 역시 관계 속에 존재한다. (하먼) - 존재자는 관계 속에서만 존재한다는 라투르의 관계론과 다름)
- 관계가 객체의 본질을 소진시키지 않는데, 자기 모습을 다 보여주지 않는 (withdrawal) 객체의 비대칭성을 의미한다.

사변적 실재론 speculative realism

- 현대 철학의 주류인 상관주의를 비판
- 인간의 사유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실재에 대한 사변적 탐구
- 객체지향 존재론(OOO)의 스펙큘러티브 리얼리즘은 '객체'를 실재의 기본 단위로 봄.(독립적 존재와 물러난 존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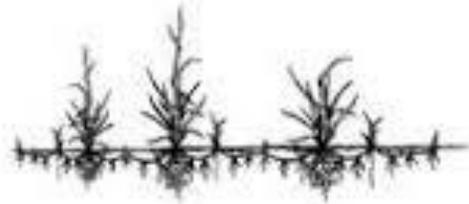
모튼의 그물망

그물망은 환경주의("생명의 그물")나 포스트모던 이론이 애정하는 많은 유기적 은유처럼 부드럽고 물렁하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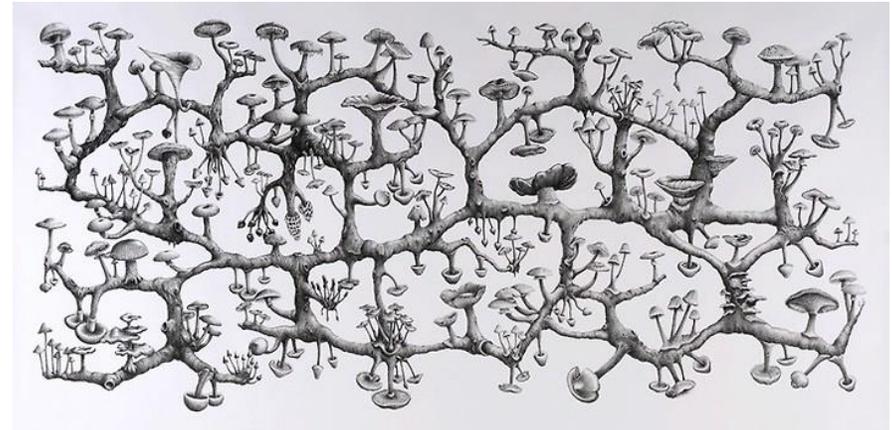
추정컨대 비계층적이기 때문에 "수목적인" 형태보다 선호되는 질 들뢰즈와 펠릭스가 타리의 리좀과 같은 아이디어를 나는 생각하고 있다. (Morton, Ecology 52-53, 107-09)



Tree



Rhizom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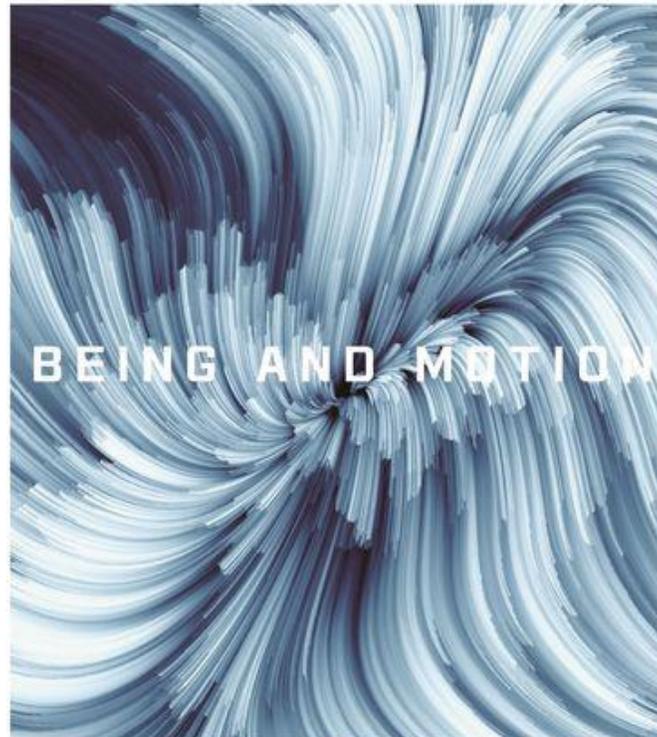
"모든 것은움직인다 omnia moveri!"

MHI 13
Mobility
Humanities
Interconnect

존재와 운동

움직임에 대한 철학의 역사

토머스 내일 지음 최일만 옮김



BEING AND MOTION

OH
2011

Thomas Nail 의 저서

- ***Returning to Revolution: Deleuze, Guattari and Zapatismo* (Edinburgh University Press, 2012, 2015)**
- *The Figure of the Migrant* (Stanford University Press, 2015),
- *Theory of the Border* (Oxford University Press, 2016),
- *Lucretius I: An Ontology of Motion* (Edinburgh University Press, 2018),
- *Being and Motion* (Oxford University Press, 2018),
- *Theory of the Image* (Oxford University Press, 2019),
- *Lucretius II: An Ethics of Motion* (Edinburgh University Press, 2020),
- *Marx in Motion: A New Materialist Marxism* (Oxford University Press, 2020),
- *Theory of the Earth* (Stanford University Press, 2021),
- *Theory of the Object* (Edinburgh University Press, 2021),
- *Lucretius III: A History of Motion* (Edinburgh University Press, 2022),
- *Matter and Motion: A Brief History of Kinetic Materialism* (Edinburgh University Press, 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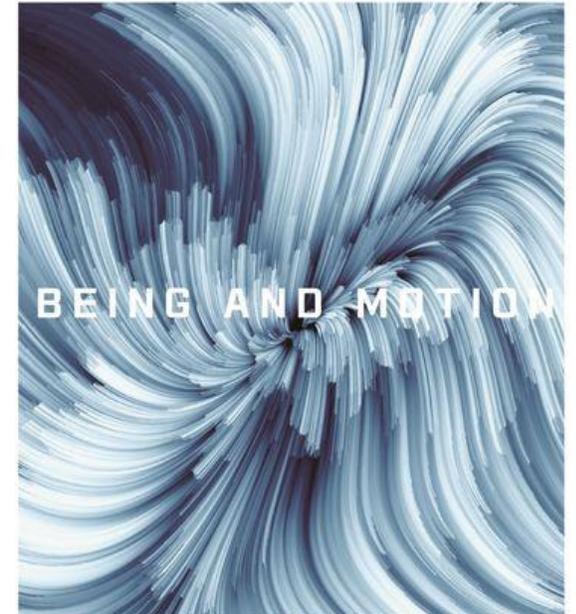
박사학위논문

MHI 13
Mobility
Humanities
Interconnect

존재와 운동

움직임에 대한 철학의 역사

토머스 내일 지음 최일만 옮김



애
리피

네일의 박사학위논문 주제 : 사파티스타와 들뢰즈

Returning to Revolution: Deleuze, Guattari and Zapatismo (Edinburgh University Press, 2012,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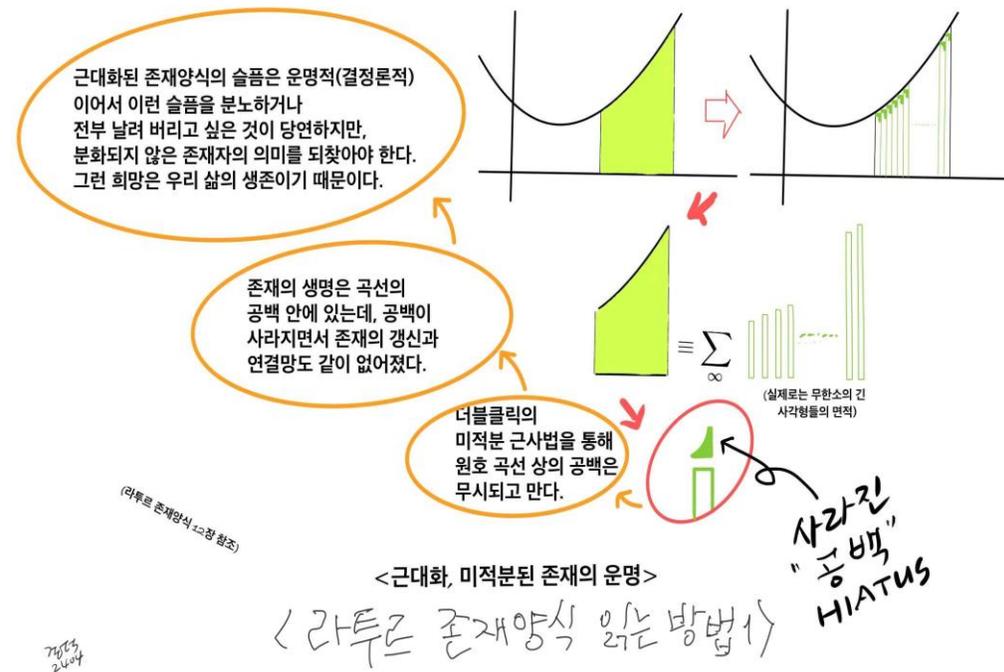
1994년 나프타에 저항하며 **사파티스타** 민족해방군은 멕시코 정부에 대한 혁명법을 선언하며 출범했다. 사파티스타는 민중 의지에 맞춰 국가를 불법으로 선언하며, 대중으로부터 공감을 얻었다.

"우리는 무력으로 우리의 해결책을 강제하길 원치 않으며, 민주적인 공간을 만들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전의 게릴라 전쟁식의 고전적인 무장 투쟁을 능사로 여기지 않습니다. 전쟁에서 중요한 것은 군사 대립이 아닌 정치입니다. 우리는 전쟁을 일으켜 죽거나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경청하기 위해 싸웁니다."(부사령관 마르코스)

들뢰즈 특이성과 intensity

- 정지에서 운동으로 (정지성 설정)
- 잠재적인 것(virtual)'이 현실적인 것(actual)을 생산 (잠재성 설정)

Becoming 생성
 Difference 차이
 Multiplicity 다양체
 Intensity 강도
 탈영토deterritorialization



dy/dx; 변수 사이의 '차이(difference)' - 순수차이pure difference

화이트헤드의 부분과 전체

부분(다자)의 합생1

전체(유기체, 일자)

일자들이 다른 부분으로 되어 그런 부분들(새로운 다자)의 합생2

전체(새로운 유기체, 일자)

또 다시 일자의 객체화

이 객체(부분)들의 합생3

또 다른 전체(일자, 노벨티로서 유기체)

들뢰즈와 화이트헤드를 읽는 네일, 옹호와 비판

- (들뢰즈) '사유의 운동'에 대한 우선권: 들뢰즈는 철학을 '물질의 운동'이 아닌, '사유의 무한한 움직임'과 '개념의 생성'으로 정의함으로써, 물질 자체의 동적인 존재론적 중요성을 간과했다.
- (화이트헤드) "운동은 정지를 전제한다. 운동의 이론과정지의 이론은같은것이나, 다른 강조점을가 지고 다른 면모에서 본 것일 뿐이다." 화이트헤드는 《자연의 개념The concept of nature》에서 변화는 현실적 존재들 사이의 관계이고 현실적 존재는 여전히 정지적인 원자라고 평가한다

- “운동성은 정지성을 전제로 한다. 운동 이론과 정지 이론은 같은 것이다. 다만 다른 강조점으로 다른 측면에서 본 것일 뿐이다.” 화이트헤드는《자연의 개념The concept of nature》에서 변화는 현실적 존재들 사이의 관계이고 현실적 존재는 여전히 정지적인 원자라고 평가한다. (토마스 네일의 관점)
- 그러나 현실적 존재는 원자적이기는 하지만 일원론적 원자가 아니라 다수적 원자, 즉 합생과정의 가능수 만큼 많은 수의 현실적 존재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복수적이고 다중적인 현실적 존재는 원자 자체의 운동성 특징과 비슷한 결과를 낳는다. (강사, 최종덕의 관점)

위상 다양체

- 위상 다양체로서의 실재가 들뢰즈 실재론에 미친 영향으로서,
 - 1) 특이점들의 분포와 배열을 위상적 관계로 보았다는 점,
 - 2) 위상 공간의 연속적 변형을 생성, 변화, becoming로 이미지화 했으며
 - 3) 물리적 대상 이전의 존재론적 구조를 생각하게 했다는 점이다.

- 위상 다양체를 보는 들뢰즈의 의미

- (1) 연결성(connectivity),
- (2) 변형가능성(transformability),
- (3) 사건화(evental field)의 장

들뢰즈가 리만으로부터 얻은 사유

- 『차이와 반복』, "리만 다양체에서 공간은 더 이상 미리 주어진 것이 아니며, 공간 그 자체가 조건화된다." ("In a Riemannian multiplicity, space is no longer prior given, but is conditioned.")
- 『천 개의 고원』, "다양체는 관계들, 특이성들, 강도들의 장이다." ("A manifold is a field of relations, singularities, and intensities.")

공창출, 공절합, 공응대

- 'A 때문에 B가 나왔다' 라는 인과 관계란 사실은 A와 B가 역사적으로 함께 출현했고(co-emerge),
- 항상 함께 절합되어 있었으며(co-articulation),
- 서로 맞아떨어지는(correspondence) 관계였다.
- 마치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가 아니라, 닭과 달걀이라는 시스템 자체가 함께 존재해온 것처럼.

(존재와 운동 55)

기입inscription 행위 자체가 실재를 어떤 방식으로든 변화시키는 실천 행위 (존재와 운동 49)

- 존재론은 운동의 체제를 창조하는 기호와 표면의 기록적 움직임이다. 그것은 재현이 아니라 실재적 물질적 창조다. 실재적 실천과 수행이다. 기술적 내용이 동적 관계의 내적으로 일관된 물질적 기호 체계를 창조한다면, 기입의 표면은 이러한 기호를 적어 두기 위해 동적 구조를 창조한다.

(존재와 운동 57)

- 기입 행위는 그 자체로 물질적이고 동적이며 역사적인 실천이며, 모든 실천은 특정 관점 안에서만 가능하며, 절대적인 객관성은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와 운동 55)

네일의 kinocene, kinopolitics

- 인간(Anthropos)이 지구 시스템에 지질학적 규모의 영향을 미치는 시대를 지칭하는 인류세(Anthropocene)는 '인간'이라는 종 전체에 책임을 전가하여, 실제로는 불평등하게 발생하는 영향과 책임을 가리고 전가한다고 네일은 비판한다.
- 홀로세Holocene, 인류세를 넘어선 "운동세"kinocene를 제안
- '키노신은 지구상태만이 아니라, 지구정치학 kinopolitics을 제시하는데, 정치와 안정에 기반한 정치가 아니라 운동패턴을 중시함으로써 기후자본주의, 소외와 빈곤국가의 불평등을 해소하는 해방적 운동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양자역학에서 보여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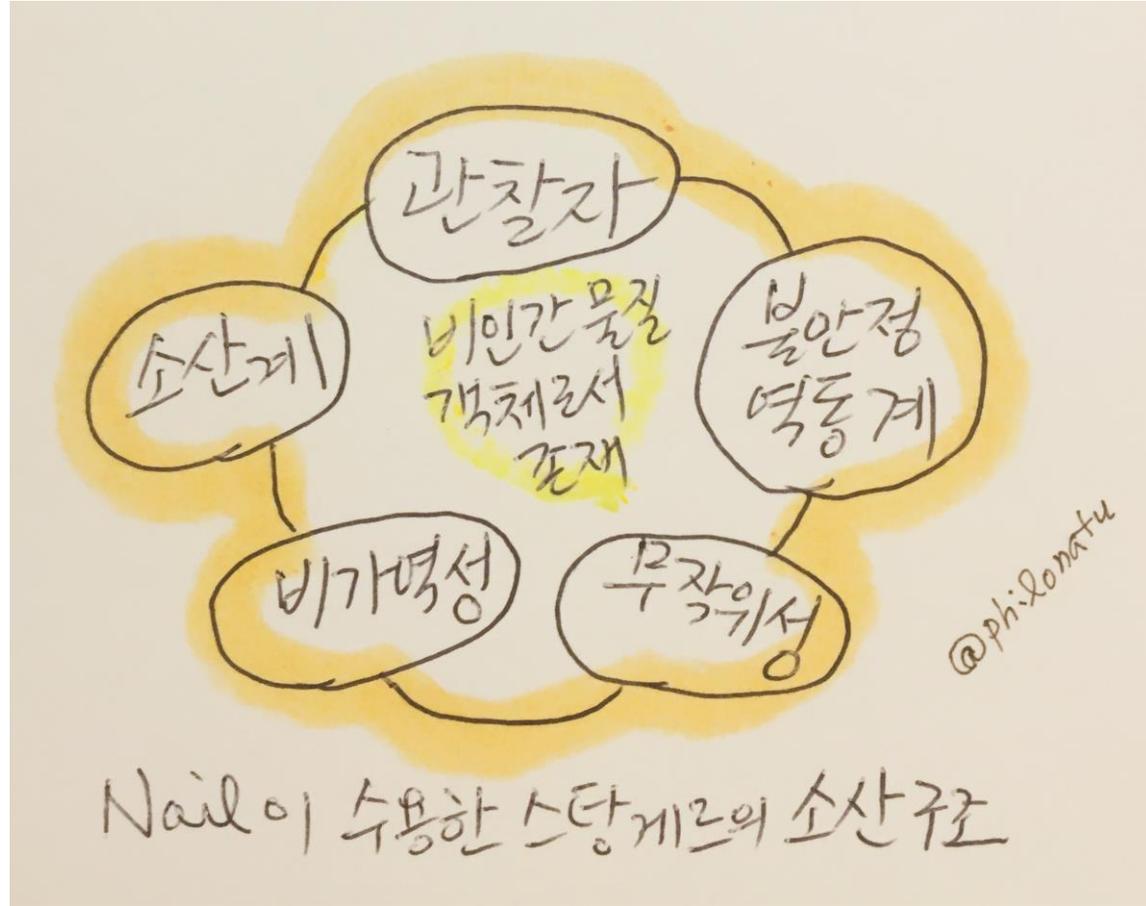
자연의 운동성을 이해하는 차원에서

철학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

(존재와 운동, 26)

단순물체가 아니라 소산구조 dissipative system

- 안정성이나 고정된 형태를 전제로 하는 전통적인 서구 철학적 사고방식과 달리, 존재(being)는 본질적으로 운동(motion)이며, 모든 것은 끊임없이 생성하고 소멸하는 과정
- 외부와 물질 및 에너지를 교환하는 '열린 시스템(open system)'에서 엔트로피가 증가하더라도, 시스템이 새로운 질서와 복잡한 구조를 형성하는 소산구조는 이러한 역동성을 나타낸다.
- 역동성의 소산구조는 에너지를 소모하면서 기존 질서를 해체하고, 동시에 새로운 질서와 형태 생성
- '키노폴리틱스(Kinopolitics)'의 정치와 윤리는 더 이상 고정된 이상이나 안정된 질서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운동' 자체를 어떻게 이해하고, 그 속에서 발생하는 불평등과 권력 관계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네일은 말한다.
- 소산구조 관점에서 '쓰레기'나 '폐기물'은 단순히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와 물질의 거대한 순환 속에서 끊임없이 변형되고 새로운 의미를 얻거나 문제를 야기하는 '움직이는 존재'어야 그 문제를 풀어갈 수 있다.



정주성sedentary paradigm에 대비한 mobility paradigm

- '움직임과 모빌리티'로 정의되는 시대
- 이동(이주, 이민), 자본과 상품의 흐름, 정보와 데이터의 이동, 기술이동
- '키노폴리틱스(kinopolitics)' 개념을 통한 모빌리티 패러다임의 정치
- 고정 영토와 민족 정체성 기반 전통 정치(geo-politics)에 대항, 움직임과 흐름, 이동성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형태의 정치학
- 존재론(ontology) 자체도 고정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움직인다.

모든 사람은 잠재적 이주민이다.

- 관광, 출장, 이주노동 모두 이주민의 다양한 모습이다..
- 이주민은 사회적으로 주어진 위치 A에서 다른 위치 B로 이동하는 지정학적 장소place이동의 존재being가 아니라 변동하는displacement “됨과 생성”becoming의 운동자이다.
- 이주와 이민은 사회와 정치의 근본동력으로 유물론적 운동성의 모습이다.figure of movement, figure of the migrant

Nail 2021, The Philosophy of Movement: An Introduction. (Part II: History)

이주민의 다양한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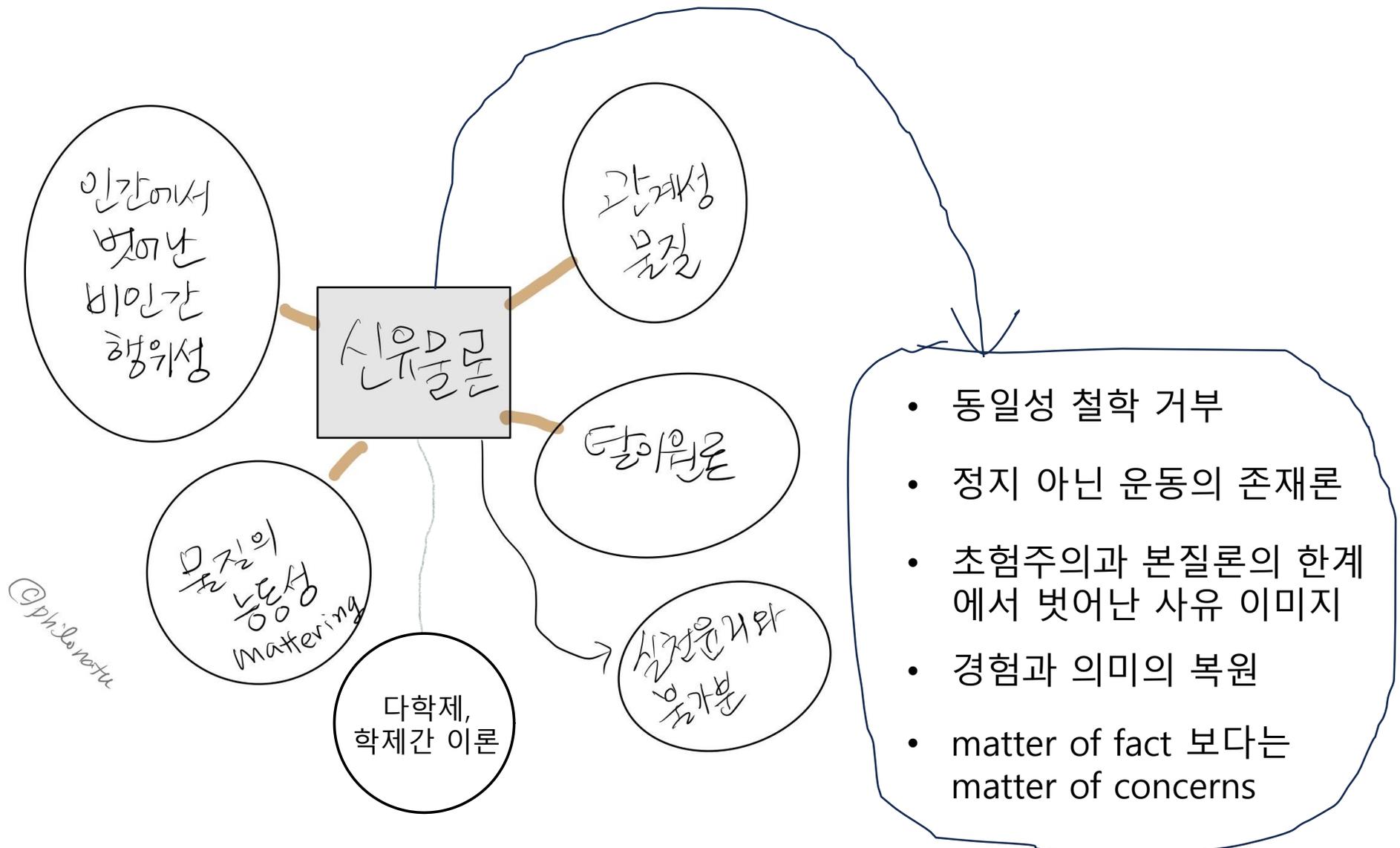
The figure of the migrant.(2015) Chap.3

- 유목민(Nomads): 문명 생성의 운동으로서 고대인의 이동
- 야만인(Barbarians): 고대 제국(특히 로마 제국)의 경계를 넘나들며 기존 정치 질서를 움직인 운동
- 부랑자(Vagrants): 봉건주의와 빈곤을 벗어나려 떠난 사람들의 잠재적 운동
- 프롤레타리아(Proletarians): 산업혁명 이후, 자본주의에서 고향에서 도시로 이동한 노동 계급의 현실 운동

신유물론의 자연철학 강의 시리즈

- 1강 들뢰즈에서 라투르까지, 미분법과 리만기하학 (64분)
- 2강 공생생물학, 마굴리스와 스탕게르
- 3강 해러웨이 신유물론의 생물학, 공생생물학, 진화생물학, 친족과 베이비, becoming (87분)
- 4강 해러웨이의 (구)영장류학 비판 (23분)
- 4.1강 involution: 해러웨이와 들뢰즈 차이 (5분)
- 5강 K. 버라드의 신유물론 -비인간행위자 (60분)
- 6강 버라드의 무nothingness와 생성, 가상에너지, 실험형이상학 (62분)
- 7강 신유물론으로 읽는 화이트헤드의 과정철학 사변철학, 합생과 현실적 존재 (66분)
- 8강 티모시 모튼의 우울한 객체와 장난감 놀이 (58분)
- 9강 신유물론 리뷰, 토마스 네일의 신유물론, 운동정치학

해당 강의 유튜브 주소를
관련 검색어로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philosofia